스스로 발부하는 십자가 구속영장

(역대하 33:1~25)

9.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발부하는 십자가 구속영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스스로 발부하는 십자가 구속영장'

'구속영장(拘束令狀)'이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체부장관의 전현직 최고위층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被疑者)가 조사를 받을 때에 도주 위험성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고를 내리기 전에 구속시켜서 조사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구속영장입니다. 또한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이 현장을 지켜본 것이 재벌 3세인 삼성의 이재용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차에서는 기각되었다가 2차 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치국가는 잘못이 있다면 법 앞에서 예외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독하게 가난해서 달동네에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엘리트 가도를 달려온 사람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승줄에 매여 특검에 끌려나오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선고가 내려져야하지만 딱하긴 합니다. 그들을 알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떠나서 1.9평짜리 구치소에 들어가서 1440원짜리 식사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져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마음을 쏟아 부었던 삶의 현장에는 가족도 있고 내 인생의 흔적과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격리되어야 한다면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격론까지 벌여가며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각되게 항변하려했던 구속영장을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구속영장을 스스로 발부함으로서 나를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救贖)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자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구속(拘束)영장으로 생각하여 나를 구치소에 가두는 것이 곧 구원이 됩니다. 구속(拘束)영장이 없다면 구속(救贖)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 왕국 유다의 제14대 왕 므낫세가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짧게 므낫세의 아들 15대 왕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왕의 특징은 9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 왕국 유다는 그들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숭배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악행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성군 히스기야 왕에 의한 신앙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므낫세는 다시 그 개혁을 뒤집는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지내고 점치기와 사술과 요술이 횡행했습니다. 또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된 짓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이방족속들은 각자 하나씩 행할 때에 므낫세는 남김없이 모조리 끌어들여서 행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악한 이방종교를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까지 끌어들여서 일월성신의 숭배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러한 일을 한 자들은 성군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우상숭배와 박수나 신접한 자의 의미는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종교로 분류되기 이전에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열정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방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요술과 사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와 점치기까지 동원한 것은 므낫세 왕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삶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과 대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라'는 말은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으니 그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의 존재 의미는 모든 삶의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성취를 이루기 위한 열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뿜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살았습니다. 어느 왕보다도 열정적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모든 이방족속의 우상을 다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특별히 악했다기보다는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왕의 노릇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만족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성취해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그러한 열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 했고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것을 인생의 성취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이것 뿐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므낫세는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의 모습을 오직 악하게만 기록하였습니다. 므낫세 이후에도 훌륭한 왕들은 있었지만 그 악함의 기운이 계속되어 남 왕국 유다를 망하게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나머지 기간을 왕 노릇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재위 기간이 55년인데 역대기에서는 그 포로로 잡힌 동안에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왜 열왕기하에는 없었던 므낫세의 회개 장면을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와 역대기 저자의 관점이 다름에 의해 이 사실이 생략되거나 부각된 것입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는데 13절을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고백합니다.
므낫세는 역대 어떤 왕보다도 이 땅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라 안에 므낫세의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고위직공무원들이 구속될 때에 그 모든 인간관계와 업적을 뒤로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

다. 어린 자녀나 가족들도 그들이 붙잡히는 모습을 TV로 다 볼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자녀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구속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격리된 구치소로 가야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특별한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이제 포로가 되어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지켜보시고, 므낫세가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재료들을 갖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십자가 사건은 므낫세가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이루어 갔던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격리되지 않고 이 땅에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으로 외우고 있고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참 신(神)임을 알지 못합니다.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적 규정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참 신이고 마음이 바로 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자리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신이고 자식이 들어오면 자식이 신이 되고 권력이 들어오면 권력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분만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참 만족과 기쁨의 내용이 되신다는 것을 므낫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스라는 역대기를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포승줄에 손이 묶여서 가족 친지 관직 명예 재산을 다 뒤로하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앞에서 열정을 쏟던 사람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듯이 자녀를 등지고 마음이 십자가 너머 포로로 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복음적 신앙입니다.
자녀 앞에서 열정을 쏟던 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구속 수감되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람도 죄의 혐의를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의 구속영장을 스스로 발부하면서 십자가 너머로 들어가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했고 만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이 땅에서 이것저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원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구속영장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눈앞에 대상이 보일 때마다 나를 구치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 열정과 마음을 쏟아 부었던 자리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듯이 내 소원이 작동하던 영역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열정적으로 살던 삶의 현장을 완전히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십자가 너머로 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내용이 되시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므낫세가 열정적으로 살던 삶의 현장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열정적으로 살던 삶의 현장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모든 우상숭배는 단순한 악함이 아닌 열정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통하던 그 시대였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됨이 왜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열정과 사랑과 모든 소원을 적용시키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영장을 스스로 발부함으로써, 십자가 너머 구치소로 마음이 들어가면 비로소 그곳에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그 반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때는 믿음도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기쁨이고 만족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과 사랑과 마음의 대상인 이 세상에 대해서 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십자가 너머 구치소로 수감시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끊임없는 십자가 생활화로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대상들 앞에서 나 스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십자가 너머 구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